



군산부설초, '학교 공개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지난 20일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공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복한 교육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전 학급 수업 공개와 바자회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단체인 교육발전회의 주도로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판매 및 놀이활동을 즐기며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공개 수업에는 전체 학부모 90% 이상이 참관해 높은 교육참여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평등 예방 교육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24일 3층 강당에서 서장, 각 과장 및 파출소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평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리나 강사를 초청하여 단순 일방향 강의가 아닌 모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안전을 정하고 고민하는 토론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가치 정립을 중점으로 교육하였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평등한 장수경찰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요촌동 지사협, 천사무료급식소서 무료급식 봉사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만중)위원들이 지난 23일 '전국천사 무료급식소 전북 김제점'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서정아 요촌동장을 포함 요촌동 지사협의체 회원 12명이 참여해 천사무료급식소를 방문한 300명의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안내, 배식, 설거지와 정리정돈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 동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관협력을 통해 더 많은 나눔과 봉사가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요촌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종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위해 '맞손'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호성전주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위탁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힘든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호성전주병원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엠마오사당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유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호드림요양병원 △정다윤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벤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 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전북 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연명의료의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전북대 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의료 영역에 걸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료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연명의료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윤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오상근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2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 100명, 노인 이용자 200명과 직원, 자원봉사자 약400명이 함께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큰공굴리기, 폐지물이, 고무신 멀리차기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기를 통해 건강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속에 더욱 뜻깊게 치러졌다. 한국수령원지력(주)무주양수발전소에서 500만원 상당의 단체 티셔츠를 MG 희망나눔 온정 지원사업은 50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후원하며 행사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생활체육대회 참여한 이용자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게임도 하다 보니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함께 어울리며 소속감도 느껴졌고,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추억이 떠올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몸을 움직이니 기운도 나고 밥맛도 좋아져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종용 관장은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20년간의 동행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20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시작점이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살피며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왕정동 취약계층에 물품 기탁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는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가 지난 23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후원물품 50박스를 에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자, 이번 후원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물품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50세대에 1일 1가구 방문으로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소방관서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모범사례 보고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관내 문구업체가 소방관서 사칭 사기 시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차단해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가 보고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는 지난 6월 23일 오전, 남원시 도동동의 모 문구업체는 자칭 남원소방서 소속이라는 인물로부터 복사용지를 구입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발신자는 공문까지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구매 요청의 신뢰를 높이려 했으나, 평소와 다른 방식에 이상함을 느낀 업체는 곧바로 남원소방서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남원소방서는 해당 업체에 어떠한 물품 요청도 한 적이 없음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업체는 사기 시도임을 간파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개인 정보 유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 공문 전송 등을 명목으로 벌이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유선 연락이나 문서 전송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소방서 대표번호(063-630-8200)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동동 지사협, '음식 나눔 및 장수사진 촬영' 행사

김제시 신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걸)가 24일 도장동 도장 경로당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식 나눔 및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동도 및 석정마을 어르신 30여명을 초청해 국수를 제공하는 한편,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와 메이크업 등의 재능기부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당시뎌저 봉사대(회장 조현경)와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인력의 손길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